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1>

부처님 생애와 불교 세계관 바로 알자

(이어서) 다섯째, 인연(因緣)은 요즘 말로하면 동기(動機)의 뜻이다. 첫째는 청법자(請法者)의 자세(姿勢)를 서술한 부분이니, 법을 청하는 자세가 여법해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청법자의 동기(動機)를 서술한 부분이니, 법을 청하는 동기가 여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자설(自說)은 묻지 않았는데도 법을 설하시니, 첫째는 법의 개요를 안 뒤에야 청할 수 있는 새 법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중생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를 보이시려고 청치 않는 벗(不請友)이 되어 주심이다.

일곱째, 본사(本事)는 전생에 겪으셨던 일을 서술한 부분이니, 첫째는 부처님의 일이고, 둘째는 제자님들의 일이다.

여덟째, 본생(本生)은 전생에 태어나셨던 일을 서술한 부분이니, 첫째는 부처님들의 일이고, 둘째는 제자님들의 일이다.

아홉째, 방광(方廣)은 방정(方正)하고도 광대(廣大)하다는 뜻이니 대승의 교설을 지적하는 말이다. 첫째는 광대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방정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미증유(未曾有)는 처음 보는 일이란 뜻으로서 불보살의 신통하신 면을 묘사한 부분이니, 첫째는 법 자체가 드높기 때문이고, 둘째는 법의 기능이 광대하기 때문이다.

열 한 번째, 비유(譬喩)는 알기 어려운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까운 예를 들어 알리는 방법이니, 첫째는 지혜로운 이에게는 먼 사례를 들어, 추측해서 알게 하고, 어리석은 이에게는 눈앞의 사례를 보여서 보면서 알게 하기 때문이다.

열 두 번째, 논의(論議)는 토론한다는 뜻이니, 첫째는 이론이 복잡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논리의 가락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 십이인연 중 제삼(第三)의 수기(授記)와 제구(第九)의 방광(方廣)과 제십(第十)의 미증유(未曾有)는 대승의 이론이다. 따라서 소승경론에서는 제외(除外)된다.

◇경전속의 세계(1)

인간이나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공간(空間)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간(時間)의 추이(推移)에 따라 어떠한 형태(形態)로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부처님께서 출현하시어 출가성도하시고 전법도생하시다가 열반에 드시고, 그 뒤를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갔던 순환 대화와 크고 작은 사연들, 역시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엮어진 소산물(所産物)이다.

이들 소산물에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쟁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등 무수한 차별이 있고,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은 차지하고 굶은 것은 피하려는 공통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현명한 위정자(爲政者)는 백성들의 그러한 심리를 잘 이용하여 신상필벌(信賞必罰)의 법칙으로 다스렸고, 내교(內敎)에서는 중생들로 하여금 사악취선(捨惡趣善)케 하시려니, 길흉화복(吉凶禍福)과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법칙을 시시하신 것이 이른바 경전 속의 세계관이다.

이러한 세계관에 근거하여,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이른바 불국토설(佛國土說)이다. 불국토설이란 우리의 오늘이 비록 예토(穢土)이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수행하여 자기의 심성을 맑히고, 중생들을 보살피고, 국토를 장엄하는 등 종교의 삼대요건을 완수한다면 이 땅 그대로를 타방(他方)의 정토와 같은 불국토로 만들 수 있다는 신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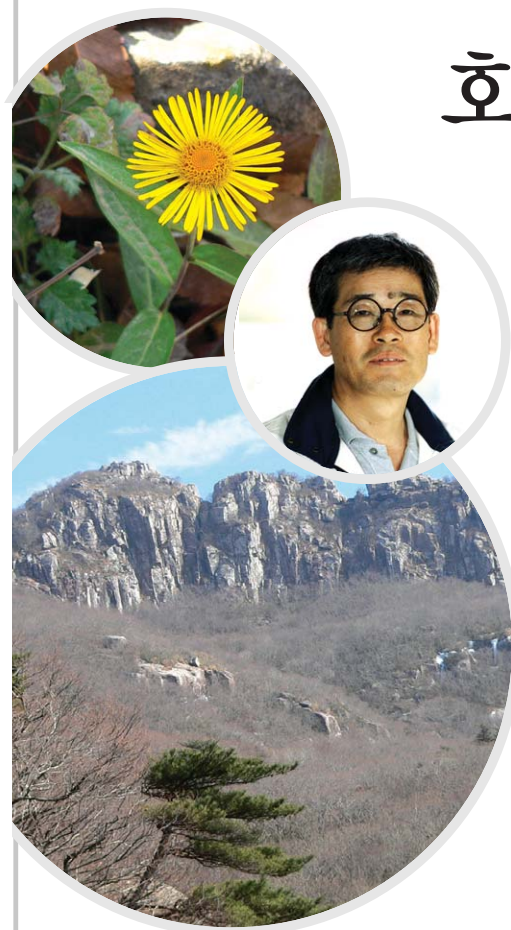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의 선인들은 열심히 포교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상당부분 견인했고, 백성을 또한 불교가 자신들의 기뻐 곳이라는 생각에 하등의 이의가 없었던 어느 시기에는 이 땅을 터놓고 불국토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으니, 향등처처기불(香燈處處皆新佛), 간곳마다 등불 밝혀 부처님께 공양했다는 말로, 이 땅이 불국토라고 불렀다는 증거가 충분한 건만 요즘은 난데없는 '성시'라는 것이 등장하여 이 땅이 더 이상 불국토일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로 다가 오고 있다.

기위(既爲) 승산(勝算)이 없을 바에 미리 투항(投降)하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기사회생(起死回生)이란 말에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 아직도 대다수 건전한 지식층(知識層)에서는 우리민족의 피와 살이 되어 준 불교계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불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이 연재를 읽으시고 경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필자인 월운 스님께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527-1954.

108 사찰 생태기행_산사의 숲을 거닐다(가을1) 김재일 지음 | 지성사 펴냄 | 1만7000원

호젓한 숲길에서의 여유



우리나라 산림의 지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 바로 사찰 숲이다. 1929년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숲과 나무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뤄졌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사찰 숲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정리해 결집한 것이 <조선 수목종류 분포도>다. 8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 산림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숲의 표본이 파괴되고 있다. 정부의 개발지상주의 정책으로 세수원 확보를 위한 개발 사업이 사찰 숲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대형 불사 등 불교 내부의 문제 요인에서도 기인했다. 이유가 어찌 됐든 더 이상의 사찰 숲 환경 파괴는 막아야 한다.

저자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선조들로부터 받은 맑고 넉넉한 사찰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감을 안고 사찰 숲의 현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을 7년 동안 준비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40대 초반에 문화 및 환경운동을 시작, 2002년 3월 '사찰생태연구소'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8개 사찰의 숲 생태를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했다. 산을 전체적으로 조망

하고 세부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관찰이 용이한 식물부터 조류와 곤충, 어류 그리고 동물의 순으로 각기 산속 숲에 어떻게 터를 잡고 살아가며, 개체 수가 늘고 줄어드는 추이는 어떠한지 등을 살폈다.

2003년 폐종양 수술과 재발, 이후 항암치료를 받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의 정진은 계속 됐다.

생태기행을 하면서 저자는 "나무는 심기만 한다고 다 잘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무는 물리적 생육조건과 사람의 정성으로 크는 법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천연덕스럽게 자란 산사의 숲을 찾을 때마다 옛 스님들의 무위자연의 손길이 새삼 놀라웠다"고 말했다.

저자는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 및 동식물의 멸종이 걸린 구체적이며 상징적인 번뇌이자 화두이기에 '108'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 기록대상을 108개 사찰로 정했다. 108개 사찰 생태기록이 우리나라 산림 기록으로 후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는 일념으로 7년간의 짧지 않은 여정 끝에 10권의 시리즈 중 첫 편을 이번에 펴냈다.

이너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승가에서의 삶의 단상들



빈곤한 썸의 초상

정각 스님 지음 | 운주사 펴냄 | 8500원

출가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사념들을 잔잔한 필치로 엮은 에세이가 나왔다.

<빈곤한 썸의 초상>은 정각 스님(원각사 주지·동국대 겸임교수)이 1989년부터 여러 잡지에 게재했던 짙막한 글들을 모아 한 권으로 엮어 낸 책을 개정한 것이다.

포교 활동에 정진하면서도 8년째 독도 지키기 운동에 정성을 쏟고 있는 정각 스님의 책은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다. 스님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사랑 및 사념의 발자취인 까닭에 스님은 이 책을 '사랑과 사념의 팽세'라 총괄적으로 이름 지었다.

이너는 기자

뜻있는 삶으로 승화하는 자세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스님 지음 | 문학의 숲 펴냄 | 1만1500원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마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무소유> <오두막 편지> <홀로 사는 즐거움> 등 많은 산문집을 펴낸 일반인들에게 불심을 전해온 법정 스님(前 김갑사 회주)이 4년 반 만에 새로운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를 갖고 돌아왔다.

풍요로운 삶속에서 심리적 빈곤감을 느끼고, 나와 상대의 외형적 소유를 비교하며 "~-라면 ~했을 텐데..."라는 가정으로 과거에 얽매어 후회하고 상처받으며 살아 가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주었음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은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이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위기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당한 삶의 길을

제시한다.

"흔히 이 육신에 내 몸이 줄 알고 지내는데 병이 들어 알게 되면 내 몸이 아님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내 몸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하면서 나는 속으로 염원했다. 이 병고를 거치면서 보다 느그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다."

지난해 겨울 호흡기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병상에 머물렀던 법정 스님은 노년의 아름다움과 나이 들의 의미, 생로병사의 예환을 순간순간 뜻있는 삶으로 승화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연주의 사상가이자 단소하고 청빈한 삶의 실천가인 법정 스님은 출가 이후 생의 대부분을 산중 오두막에서 홀로 수행하며 지냈다. 소유와 발전만을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 선택한 가난과 간소함속에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길을 제시해 왔다.

<아름다운 마무리>에는 얼음을 깨어 차를 달고, 채소 모종을 사다 심고 가꾸는 스님의 산중 삶부터 계절이 돼도 찾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 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좋은 책과 독서의 의미 등 모두 56편이 담겨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아름다운 마무리'의 의미에 대해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거기에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려 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너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마음의 숲
2	스님도 군대 가나요	지장	클리어마인드
3	연젠이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한권으로 읽는 백암리경전	일야 역편	민족사
5	성철스님 회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6	인과경	현담	선
7	이빨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8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9	달암의 잣나무	정찬주	미들하우스
10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한인동포의 아메리칸 드림 성공기



영동한 역사상 인생

김병택 지음 | 1만2000원 | 이채 펴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한인 동포의 성공 과정을 담은 책이 나왔다.

"초등학교 퇴학 후 하는 일 마다 되지 않았다"는 저자 김병택은 갖은 역경을 겪으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6·25전쟁 뒤 동두천에서 탄피를 줌과, 해인사 육주사

등지를 돌며 무술수련 등을 하다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운동화 종량 대리점을 30년간 경영했다.

2대째 의사였던 부친의 뜻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이었던 저자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국 최초의 불가마·불한증막을 도입했다. 한국식 찜질방인 킹스파&사우나(King Spa & Sauna)는 당시 뉴욕타임스에 소개되는 등 웰빙 문화의 기수로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책은 자신의 어려웠던 청소년기를 돌아보며, 힘겨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한다.

이너는 기자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팽과리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남양매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kak.com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